



‘재활용 업(UP), 쓰레기 다운(DOWN)’ 7월 오전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재활용 업(UP), 쓰레기 다운(DOWN)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감량 필요성을 공유한 뒤 김이강 서구청장, 지역주민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통합의대 현실적 방법…통합 안 되면 공모”

김영록 지사 “1도 1국립대, 학령인구↓…통합이 해법”
 공동 의대, 2개 의대·2개 병원엔 “사실상 불가능” 못박아

‘의과대학 불모지’ 전남의 30여 년 숙원사업인 국립 의대 신설과 관련해 ‘통합의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제조건인 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 논의에도 물꼬가 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는 ‘통합 의대’를 유력한 대안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2026년을 첫 신입생 배정의 골든타임이자 마지노선으로 보고 대정부 협상에

올인한다는 전략이다.
 김영록 지사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남 국립 의대 정부 추천 용역 주관사인 A.T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이 설립 방식으로 제시한 ‘1대학 2병원 신설’과 ‘통합 전체 통합 의대’를 두 트랙으로 강조한 뒤 “여러 사항을 감안해 볼 때 통합 의대를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공모제를 통해서라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들고 돌아다시 ‘통합의대론’에 힘을 실는 데는 정부의 확고한 ‘1도(道) 1국립대’ 방침과 인구절벽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1차적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 요령으로 의견을 청취한 결과 통합이 대체로 설득할 명분도 생긴다”고 말했다.
 의대가 특정 지역에만 설립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동부권과 서부권 간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데도 통합 의대가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행정적, 정무적 판단도 깔려 있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된 공모제에 대해선 “주로 해외 사례로 국내에

선 특별법 등이 필요해 쉽지 않다”고 밝혔고, 2개 지역에 각각 의대와 병원을 동시에 두는 방안엔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통합의대의 대안제인 대학통합에 대해선 “통합의 물꼬가 트이고 있고, 원론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실질적 내용은 실무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뒤 “도는 두 대학이 통합하더라도 글로벌 대학 지원은 당초 예정대로 각각 진행될 것이고, 통합 시 전남도가 자체 프로그램으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 월드컵경기장에 ‘롤 잔디’ 깎다
 “ACLE 5차전 개최 노력”…약 1천680㎡에 보식

광주시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를 치르지 못할 만큼 훼손된 월드컵경기장 잔디 보수에 나선다.
 광주시는 ACLE 5차전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광주 월드컵경기장의

훼손된 잔디 부위를 중심으로 롤 잔디를 보식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14일부터 4일간 중앙 부분 약 1천680㎡에 롤 잔디를 깔고, 그 외 부분은 코어 보식을 할 예정이다.

롤 잔디 보식은 5m×0.8m 넓이 잔디를, 코어 보식은 직경 12cm 잔디를 심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는 최근 한국잔디연구소에서 다년간 근무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보식 계획을 마련했다.
 이 전문가는 “잔디 생육환경이 좋은 10월에는 파종 후 두 달 내 컨디션이 회복되지만, 국제경기가 예정된 만큼 훼손된 부분은 시급히 보수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축구연맹은 1차전 광주 FC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경기 이후 열악한 잔디 상태를 지적하며 광주 FC에 대체 경기장을 지정 요청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3차전 광주 FC와 호호르 다를 탁집(말레이시아)의 경기는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러진다. 광주시는 광주FC 홈 팬들을 위해 원정경기 버스 제공, 광주 축구 전용 구장 전광판 중계 응원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 차기 시금고에 광주은행 선정

2금고 농협은행…금고지정심의위, 안정성 등 5개 분야 평가

광주시는 차기(2025~2028년) 시금고 선정을 위해 7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1금고에 광주은행, 2금고에 농협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이날 광주시의회, 교수 등 각계 전문가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와 재무구조의 안정성(27점), 광주시 대출 및 예금 금리(20점), 시민이용 편의성(24점), 금고관리 능력(22점), 지역사회 기여 및 광주시와 협력 사업(7점)

등 5개 분야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1금고는 광주은행, 2금고는 농협은행이 1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금고지정 방식은 1·2금고를 별도 지정하는 분리공모 방식으로, 1개 금융기관이 1, 2금고에 각각 참여 가능했으며, 1금고에 광주·국민은행이, 2금고에 국민·농협·우리·중소기업은행이 참여했다.
 광주시는 내부 행정절차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공고하고, 11월 중 시금고 운영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복합쇼핑몰 사업자, 상가 비율 10% 완화 요구

광주 전방·일신방직터 비율 15→10% 재논의…통과 주목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한차례 보류됐던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터 주상복합건물 상가 면적 비율 축소’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려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민단체는 “현재 광주지역 상가 면적 비율은 15%인데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개발사 등은 “도시계획위 결정이 늦어져 본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15%인 상황에서는 상가 공실률이 우려된다”고 통과를 희망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옛 전방·일신방직터를 개발하고 있는 켈피엔스시티복합개발에이엘씨가 제출한 주상복합건물 상가 비율 15%에서 10%로 축소 안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10일 이후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달 26일 보류 결정된 면적 비율 조정안에 대한 재논의이다.

건설로 기부채납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개발지 부근의 교량 건설과 인프라 구축 등을 추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사 측은 “상가용적 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개발이 늦어져 하루 이자가 2억원 가까이 나가고 있으며 본 설계조차 하지 못해 당초 내년 4월 예정했던 분양도 같은해 7월 이후로 미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더 큰 문제는 개발사업이 지체되면 본 개발에 필요한 2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광주지역의 상가공실률이 30%대 인접을 감안하면 15%로 했을 경우 공실이 예상되고 PF대출, 금융이자, 공공기여금 등 가중된 비용은 4300가구의 아파트 분양가에 더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조례를 통해 15%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전방·일신방직부지만 10%를 적용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조선주 기자

영암월출농원

Jicama (스캐인어)

세계 20대 슈퍼푸드

히카마 (얌빈)

히카마?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뿌리채소, 감자와 비슷한 모습때문에 멕시코감자, 콩감자로 불리우며 기능성 작물로 세계 2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될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영양소로는 ‘이눌린’이라는 천연 인슐린 성분이 풍부해 혈당조절 효능이 탁월하며 소화에도 좋은 섬유소는 물론 비타민과 플라노이딘이 많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삭한 식감으로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나 김치, 부침개나 전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됩니다.

포장

이렇게 포장되어 배송됩니다.

5kg 25,000원

생산자: **영암월출농원**
김상호 010-8158-1944 / 010-8786-1944